제지업계 경쟁적 증설“ 붐"

한솔 24만톤 · 대한 20만톤 증설 … 제지용 약품업계 가격하락 "한숨"

제지업계의 증설이 경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급부족을 겪었던 신문용지는 제지업계의 증설로 인해 오는 95년부터 국내생산량이 수요를 초과, 공급과잉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솔제지는 연산 24만톤 규모의 6호기를 최근 완공, 신문용지는 생산능력이 연산 64만톤으로 늘어났고 대한제지도 기존 생산능력(연산 7만5000톤)을 오는 95년 하반기까지 26만8000톤으로 확장키로 했다.
또 신호제지계열의 온양팔프도 청원에 연산 12만톤급의 신문용지 초지기를 오는 95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지업계 증설현황 및 계획 (단위 : MT/년)

구 분	생산능력		지 종	완공시기	비 고
	증설전	증설후			
한솔제지	400,000	640,000	신문용지	93년10월	· 전주 공장
					· 경량신문용지 전용초지6호기
대한제지	75,000	268,000	신문용지	95년 하반기	
온양팔프	-	120,000	신문용지	95년 상반기	· 청원공장
신풍제지	183,000	220,000	백판지	93년 하반기	· 3호기
	220,000	330,000	백판지	95년 이후	· 6호기

이에따라 95년말이면 국내 신문용지업계의 생산능력은 세풍(연산 24만톤), 삼풍제지(연산 2만6000톤)를 포함, 현재보다 55만톤 늘어난 연산 130만톤이 될 전망이다.
업계가 추정하는 국내 신문용지수요는 94년 85만톤 내외, 95년 95만톤 내외에 그치고 있어 96년이후에는 연간 30만톤 이상의 신문용지가 남아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지업계에서도 증설이 예상되고 있는데, 신풍제지는 최근 연산 3만7000톤 규모의 백판지설비 3호기건설을 마무리중에 있다.
또한 신풍제지는 95년 완공계획으로 연산 11만톤규모의 6호기를 발주했고, 이것이 완공되면 동급규모의 백판지공장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호기와 6호기가 완공되면 신풍제지의 연간 생산능력은 현재 18만3000톤에서 33만톤으로 대폭 늘어나, 대한펄프 · 동창제지 · 세림제지 등 3개 경쟁판지기업들을 단연 앞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지업계의 신증설은 가격하락, 수출경쟁 등의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관련 제지용 약품을 공급하는 업계에도 심각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지회사들의 대량생산체제는 각종 관련 약품을 자체 조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의 제지용 약품 공급기업들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한솔제지는 계열사인 한솔화학에서 대부분의 약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12/6>